

공동체 소식



연중 제11주일

아버지, 저희 마음에 진리와 은총의 씨앗을 가득 심어 주셨으니,
저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가꾸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말씀이 저희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가정

예수성심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께 우리 삶의 고뇌를 의탁합시다.

평협

- 일시 : 6/21(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성령 안에 말씀과 함께” 피정

- 6/26(금) 오후 7시 : 미사와 특강(다과)
- 6/27(토) 오후 4시 : 특강과 나눔, 안수기도(간단한 식사)
- 오스틴본당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5명의 봉사자와 함께 피정지도를 오십니다. 함께 하시어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례부에서 신청 받습니다.

기타

- 사제관 주방 리노베이션이 지난 수요일에 마감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청소와 살림 정리에 애써주신 형제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특별헌금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일(6/21)은 Father's Day입니다. 공동체의 형제님들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4	211	182/153	46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민서 임마누엘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차주	정예찬 미카엘 정예진 한나	정병훈 보니파시오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차호섭 요셉 최선운 마리아
차주	박혜정 가타리나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6/7	72명	322불	1,050불
현교정, 김정원, 이영민, 홍순익, 정지현, 정수한(총 4세대)			

특별헌금 : 문석찬, 김정원, 정지현, 익명(합계 900)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여름의 햇볕과 비를 받으며 나무가 자라고 곡식과 온갖 작물들이 커 가듯이, 우리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하늘 나라의 씨앗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도 이 미사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어떤 나무보다 커져 우리에게 평안한 그늘과 안식을 줍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나무나 곡식의 신비를 생각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한없음을 눈물겨워 합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7,22-24
< 낮은 나무는 높이리라. >

화 답 송 : 

주 님 당 신 을 기 러 높 임 이 좋 으 니 이 다.

- 좋으니이다 지존하신 임이시여 주님을 기려 높임이 그 이름 노래함이 좋으니이다. 아침에는 당신의 사랑 받으면 당신의 진실을 알림이 좋으니이다. ◎
- 의인은 팔마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체드루스처럼 자라나리니 주님의 집안에 심어진 그들은 하느님의 뜰에서 꽃피리이다. ◎
- 늙어서도 그들은 열매를 맺으며 진기 있고 싱싱하오리니 그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바르심을 저의 바위 당신께서는 하자 없으심을 널리 알리리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5,6-10
<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26-34
<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 >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공관 복음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 나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는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기 보다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요한 하느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비유가 더 적당하리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비유를 들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비유는 사람들이 흔히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짧은 비유이지만 사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중심에는 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수확 때에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는 어떻게 그리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땅에 뿌려진 씨가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양분이나 물, 그리고 빛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들려주는 것은 씨 뿌린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는 자라서 영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듯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성장합니다. 신기하게 저절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에 의해 성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완성을 향해 가는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

는 사이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할 뿐, 그것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1독서인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구약성경에 ‘향백나무’는 하느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향백나무의 순을 따서 심으면 그것은 ‘햇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됩니다. 이 말씀 역시 복음서에서 말하는 비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순이 자라 크고 단단한 향백나무가 되기 전까지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지만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느님의 나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장해 가는 하느님의 나라,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크게 신경쓰지 못하는 사이에도 커져만 가는 하느님의 현존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열기에 가끔은 없는 것처럼, 또 체험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듯, 순이 자라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듯, 그것은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신앙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확신 안에서 믿음을 통해 살아간다면 하느님의 현존을, 그분의 다스림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톨릭대학 허규 신부 -



제 3 편 자기 성화

제 10장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다른 이들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2티모 2,1-3).

【주석】

많은 증인 앞에서 : “많은 증인을 통하여”로 옮길 수 있다(주석 성경, 신약, 826).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 2티모 1,8에는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다.

【설명】

전사(戰士)는 명령에 복종하여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굳세어져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따르는 온갖 고난을 견디어 내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

▶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코린 12,9)는 것을 배워야 했고, 또 고통을 견뎌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다.”(콜로 1,24)는 의미가 있음을 배워야 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508항).

【어록】

▶ 나는 고통을 사랑합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께 고통받을 수 있기를 간청했고, 그 고통에서 생겨나는 열매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이 주시는 영광 때문에 고통을 열망합니다. 내 고통을 통하여 우리 형제들이 구원되고, 불쌍한 연옥 영혼들의 고통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위대해지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인생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투쟁입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자신과의 끊임없는 투쟁일 뿐입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거룩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상급은 시작만 좋은 사람이 아닌, 끝까지 이겨 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멋지게 시작했고 잘했으나, 끝까지 이겨 내지 못하고 결국 배신했던 유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신앙생활 보감」, 천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